

토지

박경리 지음 | 나남출판 |
전 21권 400쪽 내외 | 값 199,500원 |
《토지》의 표지는 윤호섭 국민대 교수의 작품이다. 윤 교수는 작업후기에서 “4반세기에 걸쳐 놀라운 인간적 성찰로 삶의 다양성을 문자로 그려낸 대하소설을 단숨에 이해하고 하루 아침에 시각언어로 만들어 보려는 내 행동에 무모함을 느꼈다”며 작업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다. 결국 소설의 명성에 버금가는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1개월을 힘들게 보낸 윤 교수는 글자요소만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타이포그래피를 표지에 적용하였다. 책 표지를 풀로 만든 종이에 인쇄하여 작가의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부초

한수산 지음 | 민음사(1977년판) |
정병규 씨는 국내최초의 전문 복디자이너로 꼽힌다. 때문에 정씨가 걸어온 길이 곧 한국 복디자이너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수산의 소설 《부초》는 정씨가 1977년 민음사에 입사해 내놓은 첫 작품이다. 당시만 해도 디자이너라는 개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을 베끼는 수준이었다. 《부초》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뛰어넘어 충격을 준 작품이었다.
정씨는 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에 대한 디자인적 해석을 내린 뒤에야 비로소 일에 착수한다. 정씨에게 복디자이너는 '사유의 피부'다.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원유홍 외 지음 | 안그래픽스 |
300쪽 | 값 25,000원 |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는 입문자들에게 타이포그래피의 실체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타이포그래피 교육자들에게는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교수법을 제안하는 책이다. 독자들이 타이포그래피의 전반적인 개념과 실재를 직접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장점은 서구의 타이포그래피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기보다 '한글' 또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실정에 맞도록 많은 문자 정보 및 그림 자료들을 각색하고 한글화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민족사진가협회 사진 | 일(절판) |
이나미에게 디자인은 책이 자신의 운명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편안하게 놓아주는 작업이다. 이 책이 어떤 톤으로 말을 할까,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을까 늘 상상하고 그것을 작업에 옮긴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사진집》은 이씨에게 3,000점이 넘는 사진들에 묻혀 책의 주인공이었던 전태일 열사와의 황홀한 감정입이 가능했던 작업으로 기억된다. 이씨는 전태일이 분신자살한 이유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진집에 넣은 그의 일기 글씨를 크게 디자인하고 이미지를 그에 맞게 배치했다.

문학과 사회

편집부 편 | 문학과지성사 |
760쪽 | 값 12,000원 |
조혁준은 해체적 타이포그래피로 유명한다. 서기훈이 작업한 《개미》 표지를 본 후 활자 자체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후 의미의 증폭이나 확장들, 의도적인 행갈이에 따른 단어의 분절 등 시의 특징을 디자인에 접목시켰다. 1999년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은 그의 첫 작품으로 이러한 고민이 담겨 있다. 특히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그의 작품은 고딕과 명조가 주를 이룬다. 단순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미의식의 반영이다. 단행본은 아니지만 계간지 《문학과 사회》 등에서 잘 나타난다.

개미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 이세욱 옮김 | 열린책들 | 461쪽 | 값 8,500원 |
서기훈 교수의 디자인은 '인문과학과 감성 공학적 원리로부터 출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미》는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작이다. 영화 '매트릭스'를 연상시키는 표지는 SF적인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기도 했다. 원작자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극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아이 잘 만드느 여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리즈》, 《타인에게 말걸기》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깊은 슬픔》 등은 아직도 독자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작품들이다.

